

조심스럽지만 새로운 시도

박수진

신경과학이라는 자연과학 분야와 예술 분야는 과학적 엄격성과 예술적 낭만성이라는 상징이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거리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통상은 양쪽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쉽지 않고,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드물다. 저자 자신도 책에서 밝혔듯이 신경미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불과 3년 전 버클리에서 학회가 창립되었을 만큼 그 역사가 짧고, 신경미학의 토대가 되는 신경과학적 지식 역시 기본적으로 뇌를 중심으로 한 중추신경계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변화,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직 누구도 신경과학적 지식으로 예술 분야를 설명하는 데 있어 독보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소개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척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신경과학에서 발견된 지식을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예술 주제들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는 식으로 각각의 소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의 작업은 이전에 보기 어려운 시도들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예술을 이해하는 기존의 방식이 다분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이려면, 그의 방식이 실증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기저 원리로 삼는 내용들이 인간 자체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산물로서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술분야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책을 통해 얻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Arnheim의 말을 인용하여 저자 자신도 인정했듯이 일반적으로 심리학은 과학적 엄격성에 토대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예술심리학이든 또는 다른 어떤 형태로 명명되든 그것이 심리학인 한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엄격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술 분야의 특성상 아직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좀더 창의적으로 가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중심주의로 접근하여 확대 해석할 때는 더욱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저자의 주장들은 새로운 한편, 이론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미개척의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설들을 세워볼 수 있고, 저자의 능력이 그 점에서 빛지지만,

각각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측면이 많다. 신경과학에서 확인된 결과나 예술분야에서 얻어진 내용들은 각기 자기 분야에서는 비교적 확고한 주장들이 될 수 있다. 가령 신경과학이 밝혀낸 지식에 비춰 좌/우뇌의 특성을 언급할 수는 있다. 그리고 초상화를 중심으로 한 예술작품의 통계적 수치 분석을 통해 화면을 구성하는 것들의 특징을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양자를 연결하여 우측 선호의 실제성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은 반증될 수 있는 가설로서 머무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저자의 주장은 독특하고 참신하면서도 현재로서는 다소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작품에 대한 선호 판단을 감정적 수준에서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간에 대해 알려진 지식과 결합하여 인지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각자가 가치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지적 만족감은 막연히 “그냥 좋다”라는 느낌만으로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Bartlett에 의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분명한 것들을 의미 있게 또는 명료하게 만들려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쾌감이 더 상승할 수 있다. 예술분야에서도 기저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새로운 통찰이 생기고 막연한 느낌과는 다른 종류의 쾌감이 유발될 수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그

런 면에서 남다르고 그래서 그의 책을 기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저자와 나머지 동료들에게 남은 일은 그가 인용한 또는 새롭게 제안한 다양한 가설들이 얼마나 실제하는가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

《너, 아름다움을 말한다》 지상현 지음 | 해나무 | 247쪽 | 값 25,000원

이 글을 쓴 박수진은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인간정보처리 원리의 이해와 응용, 조형심리학, 지각심리학, 색채심리학 등을 강의했다.